

WEEKLY REPORT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 163
MAR 19 2021

발간년월 2021년 3월 19일 (통권 제163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 발행인 장 영 태 총괄 이 주 호 감수 최 재 선 담당 김 엄 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시아, 항만 구역에서만 유해물질 환적 허용 추진
- 메가폰, 러 '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' 가입·활동 강화
- 러 극동지역의 원목 수출규제, 목재 산업 위기 초래
- 우즈베크네프티가스, 연료 가스 공급 받고 시 운전 착수

주요 통계

- 2020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-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주요 동향



러시아, 항만 구역에서만 유해물질 환적 허용 추진

■ 러시아는 항만 이외의 지역(연안)에서 유해물질을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^{a)}

- 최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해양에서 선박의 화물환적으로 생태환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, 5월 1일까지 해외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환적 행위를 규제하는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함
-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러시아는 우연적 또는 의도적 방류, 사고 및 비상사고, 해양 환경 오염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
- 해당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(EEZ), 러시아 항만 이외의 지역(연안), 러시아 카스피해의 영해에서의 유해물질을 환적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■ 다만, 이 같은 규정은 지질탐사와 광물자원 채굴을 위한 구조물 및 선박을 공급하기 위한 환적에는 적용되지 않음^{a)}

- 또한, 지질 탐사작업을 하기 위해 설계된 인공 설비 및 구조물과 탄화수소의 환적 행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pravitelstvo_rf_planiruet_zapretit_perevalku_opasnyh_veschestv_vne_portov.html(2021.3.12. 검색)

메가폰, 러 ‘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’ 가입·활동 강화

그림. 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 창단



자료: <https://customsforum.ru/news/business/v-rossii-poyavilas-assotsiatsiya-tsifrovoy-transport-i-logistika-549955.html>

■ 디지털 교통·물류협회는 모든 운송 수단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분야와 교통·물류분야 기업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단체임

- 이 단체는 2019년 러시아 교통부의 지원으로 러시아 운송 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, 러시아의 대표적인 운송사, 선사, 물류시스템 개발 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
- 주요 회원으로 러시아 철도청, Aeroflot, Avtodor Group of Companies, RT-Invest Transport Systems, State ATM Corporation, TransTeleCom Company, Azimut (Rostec Group of Companies), ZashchitaInfoTrans, GLOSAV, NPP Digital Radio Engineering Systems 등이 있으며, 올해 ‘Rosmorport와 메가폰이 가입했음
- 회원사들은 물류에 필요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도입, 승객 및 화물의 이동성 증대, 무인 기술 상용화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,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계획임

- 특히 이 협회는 ①복합화물운송(전자문서 관리, 화물 상태 및 위치 모니터링, 운송 및 물류시설 예약, 물류 루트 등), ②국경통과 화물(세관 절차 간소화, 디지털 운송, 리드 타임 없는 운송시스템 등), ③여객 서비스 품질 향상(단일 e-티켓 시스템 등), ④교통디지털 인프라(다양한 유형의 교통 흐름 제어 디지털 기술 등), ⑤화물추적시스템 보안성(안전한 정보관리와 무인항공기 무단 사용 방지 시스템 등), ⑥생태환경(환경 모니터링 시스템), ⑦무인차량(운송수단의 무인화, 인공지능 사용 관련 법적 규제 개발) 등 모두 7가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임

■ 메가폰(MegaFon)은 러시아에서 디지털 운송 및 물류 공간을 구축하고, IoT, 빅데이터 및 무인 차량용 통신기술 개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계획임

- 이와 관련하여 메가폰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분석, 비디오 분석 및 지역 개발의 주요 지표를 평가하고,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 시설, 도로, 교량, 교차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에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<https://ru-bezh.ru/press-releases/39882-megafon-vstupil-v-assocziacziyu-czifrovoj-transport-i-logistika>(2021.3.17. 검색)
- <http://d-russia.ru/proekt-mintransa-tsifrovoj-transport-i-logistika-odobren-prezidiumom-pravkomissii.html>(2021.3.17. 검색)

러 극동지역의 원목 수출규제 정책, 목재산업 위기 초래

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원목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목재 기업인 RFP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이스트 러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목재 산업 현황과 전망을 피력

-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원목 수출 제한조치에 따라 극동 지역의 목재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
- 이 정책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목재 가공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투자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, 제한적인 보호 관세가 도입되면서 수출이 막히는 결과로 이어졌음
- 극동 지역의 벌목 기업은 대출을 받아 목재를 생산하고, 가공하는 시설을 건설했으나, 투자 비용에 비해 높은 수익이 나지 않아 파산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
- 인터뷰에 나선 콘스탄틴 라쉬케비치 최고경영자는, RFP 그룹이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할당량 내에서 목재를 생산할 수 있으나, 이 같은 수준에서는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
- 목재는 기본적으로 하단 부분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지름이 감소하는데, 목재가 지나치게 얇은 상단의 목재는 나무껍질을 제외하면 가공에 적합한 부분이 거의 없어 비효율적인 원료만 남는다는 문제가 있음
- 특히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목재의 50%는 낙엽송인데, 이 같은 낙엽송은 펄프 생산에 적합한 목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펄프 산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실정임
- 한편, 목재 생산의 계절성 문제도 한계로 작용하는데, 극동지역의 경우 겨울에는 낙엽송의 비율이 높고, 여름에는 가문비나무와 같은 침엽수의 비율이 높음
- 겨울에 벌목한 낙엽송을 가공·처리해야 하지만, 공장 가동이 따라갈 수 없어 특정 시기에 목재가 과잉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, 잉여 목재의 저장에 어려워지는 불균형이 발생함
-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는 정부가 중국 등 해외 수출을 허용하는 것인데, 특히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다수의 펄프 공장에서 원자재를 처리할 수 있어 시장성이 있다는 판단임

■ 2007년 이후, 러시아는 원목 처리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나, 목재 기업은 잉여 원목을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함

- 이는 현재 낮은 등급의 목재를 가공하여 비용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임
- 지난 5년 동안 일본과의 장기 계약을 위해 연료 펠릿 시장이 형성되기는 했으나, 시장성 있는 원목 생산이 이루어져야 폐기물로서 연료 펠릿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함
- 대규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우 표준화된 원자재에 대한 대량 처리와 효율적인 상품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 시장성 있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
- 유리 트루트네프(Yuri Trutnev)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, 목재 가공 단일 국영 기업의 설립을 통해 극동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검토 가능한 대안의 하나임
- 극동 및 러시아 연방 전체 기업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

그림. RFP 그룹의 원목 생산



자료: <https://www.eastrussia.ru/material/nevozmozhno-kazhdy-god-menyat-pravila-i-vse-podprygnuli-i-pobezhali-/>

김현진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hyunjink24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eastrussia.ru/material/nevozmozhno-kazhdy-god-menyat-pravila-i-vse-podprygnuli-i-pobezhali-/>(2021.3.15. 검색)

우즈베크네프티가스, 연료 가스 공급받고 시운전 착수

그림. 우즈베크네프티가스 GTL 공장



자료: <http://www.uzdaily.uz/en/post/63973>

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기업 우즈베크네프티가스(Uzbekneftgaz GTL)가 처음으로 우즈트랜스가스(Uztransgaz JSC)의 파이프라인으로 연료 가스를 공급 받음^{a)}

- 3월 3일 우즈트랜스가스의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우즈베크네프티가스 GTL 공장에 연료 가스가 공급되기 시작됐음
- GTL 공장은 공급 받은 천연가스를 제트유와 같은 액체연료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총칭하는 의미임
- 연료 가스 사용승인과 함께 우즈베크네프티가스 공장 연료 가스 시스템 78호기(Fuel Gas System, Unit 78)가 가동되었으며, 기술 장비의 시 운전을 비롯한 단계별 작업이 시작됨
- 연료 가스는 메탄, 부탄, 프로판, 수소, 일산화탄소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천연가스, 코크스 가스, 석탄 가스 등의 가스체 연료임

■ 우즈베키스탄 GTL, 슈르탄 가스 화학 단지과 EPC 계약 업체 간 협력으로 연료 가스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

- 우즈베키스탄 GTL(Uzbekistan GTL), 슈르탄 가스 화학 단지(Shurtan Gas Chemical Complex) 및 우즈GTL 프로젝트(UzGTL Project) EPC 전문가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로

우즈베크네프티가스 공장에 연료 가스를 안전하고, 성공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

- 우즈베크네프티가스 공장 연료 가스 파이프 라인은 슈탄 가스 화학 단지가 건설과 설비를 담당함
- 현재 우즈베크네프티가스 공장은 시 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단기적으로는 공장 보일러 가동 등 생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임

김지영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iyeong@kmi.re.kr/051-797-4765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1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9/2020 증가율
극동지역	10.38 (+5.5%)	6.35 (-4.9)	16.73	+1.3%
북극해	1.99 (-17.8%)	5.6(-10.1%)	7.59	-12.2%
발트해	9.44(+8.4%)	11.61(-13.8%)	21.05	-5.1%
아조프-흑해	8.0 (+7.7%)	9.33(-29.3%)	17.33	-15.9%
카스피해	0.24 (-21.5%)	0.41 (-3.0%)	0.65	-10.7%
합계	30,05(+4.7%)	33.3(-16.7%)	63.35	-7.8%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초카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안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라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[https://portnews.ru/news/308733/\(2021.3.9. 검색\)](https://portnews.ru/news/308733/(2021.3.9. 검색))

표.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식료품 및 원자재	392,385.8	63,662.4	3,476.1	1,172.1	395,861.9	64,834.5
광물 제품	1,024,552.3	35,285.6	29,442.0	37,716.1	1,053,994.2	73,001.7
연료 및 에너지 제품	830,332.8	34,745.2	679.2	0	831,012.1	34,746.3
생고무 및 화학 제품	4,299.1	64,780.6	601.4	516.5	4,900.5	65,297.1
가죽원료, 모피 제품	1.3	1,799.6	1.0	3.5	2.3	1,803.0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80,912.2	8,759.6	491.2	164.8	81,403.3	8,924.4
섬유, 섬유 제품 및 신발	206.1	29,685.9	10.2	226.6	216.3	29,912.5
금속 및 금속 제품	42,978.9	65,365.4	302.4	4,358.4	43,281.4	69,723.8
기계류	124,701.3	521,670.0	462.3	1,548.2	125,163.7	523,218.2
기타	664,321.9	37,508.1	18,703.4	612.9	683,025.3	38,121.0
합계	3,164,691.8	863,262.5	54,169.2	46,320.2	3,218,861.0	909,582.6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[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\(2021.2.25. 검색\)](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(2021.2.25. 검색))

표.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(단위: 톤, 천 달러)

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선어,냉장어	2	6.8	-	-	-	-	-	-	1.9	6.8	-	-
냉동어	212,985	281,620.3	357	1,782.2	654	529.5	-	-	213,638.1	282,149.8	597	1,938.0
연어류	25,795	86,331.1	-	-	0	0.0	-	-	25,795.2	86,331.1	-	-
넙치	521	2,713.8	-	-	-	-	-	-	521.2	2,713.8	-	-
가자미	127	108.5	-	-	-	-	-	-	127.0	108.5	-	-
가자미류	2,052	1,448.3	-	-	-	-	-	-	2,051.7	1,448.3	-	-
청어	70,866	39,844.9	-	-	117	64.6	-	-	70,983.3	39,909.5	-	-
대구	11,268	29,599.6	-	-	-	-	-	-	11,268.2	29,599.6	-	-
명태	66,223	71,432.1	-	-	533	460.9	-	-	66,756.8	71,893.0	-	-
농어	30	83.4	-	-	-	-	-	-	30.2	83.4	-	-
간, 곤이 (어란)	1,280	195,814.6	-	-	-	-	-	-	1,280.1	30,731.5	-	-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1,047	1,623.8	-	-	-	-	-	-	1,046.6	1,623.8	-	-
생선 필렛, 어육	3,965	11,140.3	250	986.0	26	66.7	-	-	3,991.3	11,207.0	250	986.0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118	211.1	178	989.3	0	0.0	-	-	118.1	211.1	178	989.3

갑각류	13,192	316,533.4	106	608.3	-	0.0	-	-	13,191.4	316,533.4	106	608.3
계류	11,632	303,068.7	-	-	-	0.0	-	-	11,632.5	303,068.7	-	-
조개류	9,709	29,454.2	-	-	62	69.5	-	-	9,770.9	29,523.7	-	-
가리비	541	1,528.0	-	-	-	-	-	-	541.1	1,528.0	-	-
오징어류, 문어류	8,283	21,942.6	142	551.2	62	69.5	-	-	8,344.0	22,012.1	142	551.2
수산 무척추 동물	2,687	7,086.3	-	-	0	36.6	-	-	2,687.0	7,122.9	-	-
해삼류	697	999.2	-	-	0	36.6	-	-	697.5	1,035.8	-	-
성게류	1,872	6,026.6	-	-	-	-	-	-	1,872.4	6,026.6	-	-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[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\(2021.2.10. 검색\)](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(2021.2.10. 검색))